

나무 앞에서 자연과 인생을 성찰하다

김정선 기자

2014-12-16 16:06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영국 출신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가 16일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 전시회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너도밤나무, 삼나무, 주목, 호랑가시나무.... 제가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는 매우 다양하지요. 저는 이런 나무가 이끌어주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균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휘었으면 그 변형대로 나무의 성격을 그저 따라잡니다."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69)는 기후, 질병 등으로 쓰러진 나무를 재료로 쓰는 조각가다.

나무를 오랜 시간 내부에서 건조했다가 그 특성을 살려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작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종로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서 16일부터 시작된 그의 전시회를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작가는 작품마다 재료로 채택한 나무 종류와 특성, 제작과정 등을 세세히 설명했다.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 작업하다 보면 갈색에서 흑색으로 그리고 더 방치하면 회색으로 변한다고 했다.

나무마다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 가로로 잘 잘라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세로로 더 잘 쪼개지는 나무도 있다.

작품활동 초기에는 가공된 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지만 '진짜 나무'를 알고 나니 자신의 기준에선 인위적 형태 없이 있는 대로의 나무를 표현하게 됐다고 한다.

작가는 나무의 40%를 차지하는 수분을 말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가 균열과 변형을 따라 나무 본연의 형태를 살리고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작품을 구현해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내쉬의 'Two Cut Corner Columns' <국제갤러리제공>

쓰러진 지 30년 된 주목, 밀동을 재료로 삼은 나무.... 그에게 나무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활동을 "나무를 향한 헌신이자 열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나무가 "생명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자연과 친화력이 강한 한국 정서에선 사실,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친구나 다름이 없다.

굳이 조각작품이라고 하지 않아도 설산에 올라 눈 쌓인 주목을 보거나 잘린 나무의 단면을 보기만 해도 훌륭한 자연의 작품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내쉬의 작품은 도심 한가운데 갤러리에 있는데도 자연의 나이트와 표면을 잘 느낄 수 있고, 코를 가까이 갖다대면 먼 곳에서 나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한국에선 2007년 국제갤러리에서 전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문의 ☎ 02-735-8449

jsk@yna.co.kr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304473>